한국학 발전 이바지한 古書의 수호자

책의해조직위 선정 '5월의 책의 인물' 통문관 이겸로옹

60여년의 세월을 古書 속에 묻혀 살면서 책사랑의 외길을 걸어온 인사동 '통문관'의 주인 이겸로(83)옹이 책의해조직위원회(위원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5월의 책의 인물'에 뽑혔다.

'古書' 하면 '통문관'의 이름 석자로 대표되고 '통문관' 하면 '이겸로'라는 '노서두'(서두는 책을 갉아먹는 좀벌레라는 말로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한다)의 얼굴과 등치될 만큼 고서 방면에서 一家를 이룬 이옹은 그런 만큼 이번 선정이유에서도 "우리의 고문헌을 발굴,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그 가치를 올바로 평가받게 한 전적의 수호자이자 귀중한 전적을 영인 출간하여 한국학 발전에 이바지한 출판인이며, 주요 전적의 수집가로 평생을 보낸" 업적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니 마음이 흐뭇합니다"며 소박하게 소감의 운을 뗀 이옹은 "내가 출판문화의 산 증인이라느니, 국학발전에 큰 기여를 한 장서가라느니, 고서유통의 해결사라느니 하는 등의 거창한 이름으로 세간에서 불리며 마치 고서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것은 자칫 나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들리기도 하나 세상사에는 다 인과가 있듯 오늘의 내가 있고, 이 자리가 있는 것은 그것을 있게끔 한 중요한 요인들이 있으니 그것들과 함께 축하받아 마땅하지요"라며 책에 묻혀 평생을 보낸 사람다운 겸양한 소감을 피력했다.

그가 말하는, 오늘의 이 자리와 인과관계에 있는 몇가지의 '因'이란 첫째는 책이요, 둘째는 자신의 수양이요, 셋째는 1945년에 있었던 국권회복이요, 넷째는 건강이다. 먼저, 책이 있어 오늘의 자신이 있었으니 우선 감사해야 할 존재이고, 또 책과 인연을 맺었대도 만약 그가 방탕했거나 사심이 있었다면 곧 싫증을 내고 내버렸을 일을 그나마 쌓은 수양으로 이 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평생을 해올 수 있었으며, 자신이 책과 인연을 맺었을 당시처럼 우리나라가 아직도 식민치하에 있었더라면 고서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자신의 일은 결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며,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런 영광스런 자리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그가 함께 축하받아야 할 몇가지의 '因'에 대한 설명이다.

'古書' 하면 '통문관'의 이름 석자로 대표되고 '통문관' 하면 곧 '이겸로'의 얼굴이 떠올려질 만큼 고서 방면에서 一家를 이룬 이옹. 그는 "우리의 고문헌을 발굴,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그 가치를 평가받게 한 전적의 수호자이자, 한국학 발전에 이바지한 출판인"의 공로가 인정돼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다.

이겸로옹.

광복 무렵 인사동에 고서점 통문관 열어

그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문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연륜을 갖고 있는 고서점이자, 우리나라 고서유통의 최대 산실로 꼽힌다. 그가 지금의 그 자리에 '통문관'이란 상호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고서수집가로 나선 것은 광복 무렵인 그의 나이 34세때였다. 물론 그보다 훨씬 전인 17세에 책방의 점원으로 이 방면에 첫발을 내디뎠고, 그때부터 꿈꾸었던 서점주인에의 꿈을 8년만에 이루어 관훈동에 자신 명의의 첫 서점을 열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고서에 몰두한 것은 이때부터다.

"해방정국의 혼돈된 상황에서 조상들의 손때가 묻은 문화재급 고서화나 귀한 책과 자료들이 쏟아져나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고서화의 수난시기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희귀한 책과 자료들을 수집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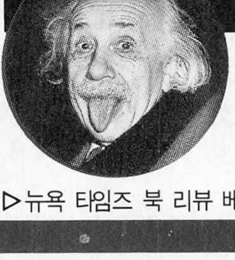
하마트면 사라질 뻔했던 수많은 국보급 희귀본과 서화들이 그로 인해 가까스로 되살아난 경우는 허다했다. 이렇게 살려낸 책으로는 역대 시조 998수와 7편의 가사를 곡조에 따라 분류한 최초의 시조집「청구영언」을 비롯해 6·25전쟁으로 한때 행방불명이 되었던 보물 419호「삼국유사」, 국어학계에서 유일본으로 널리 알려진「월인석보」등 국보급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학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적자료들을 영인 출간해 국학발전에 한몫을 담당하는 등 출판인으로서도 큰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위당 정인보가 서문을 쓴「성웅 이순신」을 첫 출판한 이래 최근의「고유섭전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60여종의 책을 출간해 왔다.

"고서를 만지다보면 무아지경의 세계로"

이옹의 책에 대한 인식은 가히 신앙에 가깝다고 주변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지금도 고서의 구겨진 책갈피를 일일이 다림질해 펴고 좀먹고 찢어진 책장을 바루며, 없어진 표지는 새로 덮고 끊긴 책끈은 다시 고쳐 맨다. 이렇게 고서를 뒤적거리며 완상도 하고 보수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아지경의 세계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아직도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 희귀본을 다수 포함한 1만2천여권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이 老翁의 책사랑은 인근에서 역시 고서점 '신문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 동호(54)씨에 의해 대물림되고 있다.

— 정혜옥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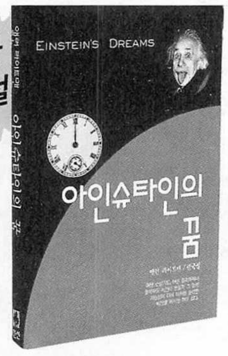
아인슈타인의 꿈
EINSTEIN'S DREAMS



"아인슈타인과 함께 떠나는 환상 시간 여행"

▷뉴욕 타임즈 북 리뷰 베스트셀러

신간 소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시간에 대해 많은 꿈을 꾸었다.
꿈은 그의 연구를 사로 잡아 버렸다.
그러나 꿈은 이제 끝났다. 그럴듯한 시간의 성격은
시간에 대한 꿈을 꿀 때마다 한 가지씩 새로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유달리 마음을 끄는 것이다.
그는 꿈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한다.
그 세계에서는 시간이 원처럼 흐를 수도 있고,
거꾸로 흐를 수도 있으며 또는 꾀꼬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마침내 드러나는 삶과 우주의 참 모습…
•앨런 라이트맨/권국성 옮김/값 4,800원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